

노태우씨 “아버지, 5·18 마음 아파해”

노재현 “양방향 소통 불가능...광주 일 보고 드려”

“100번·1000번 이고 사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동아시안문화센터 원장은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치유와 화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이 ‘5·18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 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냐며 분명 사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

밝힌 것에 대해 “아버지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5·18 과 관련해 항상 마음의 큰 짐을 가지고 계셨다”며 “특히 병상에 누운 뒤부터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서 참배를 하고 사죄의 행동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저한테도 고스란히 마음의 짐이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진행자가 “민주묘역 다녀오신 다음에 아버지께 말씀하셨는지”를 묻자 노 원장은 “2008년부터 병상에 계셨고 말조차 하지 못하지도

왜 오래돼 양방향 소통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반응을 한다”며 “참배할 때마다, 광주가서 여러 가지 (한 일)을 아버지께 보고를 다 드렸다”고 했다.

노 원장은 “평에회복, 보상 이런 것들은 필요조건이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가해자 측에 있었던 분들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되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방역 소독 23일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PC방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직원, 일곡동 행정복지센터 방역단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소독하고 있다. 북구는 이날 일곡지역 PC방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청 담당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동방역단 40여명이 투입돼 업소 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 33번 확진자가 일곡동에 거주하며 인근 PC방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봉우 기자

목욕탕서 때 밀던 손님 열쇠 훔쳐 옷장 텅 6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목욕탕서 때 밀던 손님 열쇠를 이용해 금품을 훔친 A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50분쯤 북구 한 목욕탕에서 B씨(62)가 세신을 받기 위해 벽걸이에 걸려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에서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세신 서비스를 받는 틈을 타 이같은 짓을 벌인 뒤 20분만에 목욕탕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탕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의 뒤를 밟아 북구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지 1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범에 주거가 일정치 않고 누범기간인 점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남 가두리양식장서 부패한 50대남성 사체 발견

해남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전 11시46분쯤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던 관리선 선장이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사체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발견해 이 남성이 경기도 안양 출신의 A씨(55)로 특정했다. A씨는 최근까지 해남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체는 심하게 부패돼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고 지문도 물에 붙어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 3일 해남 한 도로에서 A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실족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건당 7만원’ 20대 보이스포싱 현금 수거책 검거

대출금리를 내려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포싱(사기전화)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포싱 조직원 이모씨(2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포싱에 속은 광주·전남지역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 480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포싱 조직에 납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이스포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금리를 내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보이스포싱 조직과 접촉한 이씨는 1건당 7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씨는 검거했고, 이씨가 송금한 돈은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가 요청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지병 앓던 50대 기초수급자 숨진 채 발견

지병을 앓고 있던 50대 기초수급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전 9시17분쯤 동구 한 원룸 내 화장실에서 A씨(54·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원룸 건물주는 A씨의 월세가 2개월 동안 입금되지 않아 보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본 건물주는 경찰에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 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5~7일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근육이 녹는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도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코로나 비켜간 ‘학원·물류센터·콜센터’...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추가 감염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서 최근 집단감염 발생한 시설들을 피해 규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영림브란트 미술학원과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 서울 금천구 현대홈쇼핑 콜센터에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규모가 적은 우수

사례들을 보면 시사점을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내 방역 근무환경 개선, 직장 내 불필요 접촉 및 동선 최소화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생활방역수칙 준수·시설 내 방역 근무 환경 개선
직장 내 불필요 접촉 및 동선 최소화로 피해 줄여”

고 말했다.

강서구 소재 영림브란트 학원에서는 38명 중 1명만 코로나19에 걸렸다. 강의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 및 휴식 시 마크스 미착용 여

부를 자체 확인하면서 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송파구 소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이 물류센터에서는 출퇴근 명부를 철저히 작성하고 있었으며, 확진자 발생 장소 이외 다른 작업장간 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현대홈쇼핑 콜센터에서는 69명 중 5명(7.2%)만 감염되는데 그쳤다. 이 콜센터는 근무자 책상 사이 추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좌석을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근무 환경을 방역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다. 또 식사 시에는 혼밥을 권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학원이나 물류센터, 콜센터 등과 같은 코로나19 취약집단지원 관리자는 우수 사례를 참고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가 침입했을 때 피해 규모가 매우 작게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